

<論說>

소결음을 止揚 할 수는 없는가

—우리회의 飛躍的 發展을 爲하여—

鄭 益 鎔

獸醫師들의 自然發生的인 모임들을 제치놓고 獸醫節法制定을 契機로 本格的인 獸醫師들의 組織體 即 大韓獸醫師會 및 各地方獸醫師會가 創立되 것은 1957年의 일이다.

그러니까 於焉 7年을 嫡子 結晶마를 한 셈이 된다. 그만하면 中間決算을 한번 해볼지도 한 일이다.

나는 이 글을 쓰려니까 우리會가 創立되면서 어엿히 내놓은 우리의 機關誌 “獸醫界”의 創刊號에 投稿한 獸醫組織體의 史의 小考”를 通하여 先進諸國들에 있어서의 本받고도 남을만한 創發的인 獸醫組織活動의 史實들을 紹介하면서 우리의 새 出發을 祝福하고 激勵한 생각이 문득 나서 書架에서 그때의 創刊號를 끌어 내보았다.

其間 우리도 그 사람들만한 初期에 있어서의 開拓者의 熱誠을 갖고 일해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히 비져볼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우리도 남못지 않은 意慾을 갖고 許多한 制約性을 克服해가며 싸울된 탐보찬 일들이 決코 적지는 않다고 느꼈다.

첫째로 그 括目相對할만한 進展으로는 組織運營面에서의 革新이 그것이다.

創立初期以來 相當時日동안 本會 및 各地方 獸醫師會들의 中樞的任員中에 政治的 및 官僚的 影響力을 過度히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많아 眞正한 自律的活動을 沮害할 憂慮가 없지 않았으나(어떤 [道는 畜政課長이 直接 會長이 되어 있는데도 2, 3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는 本會를 爲始하여 全國各地方獸醫師會에서 이런 事例들이 [잇은듯 없어지고 오직 會發展만을 爲한 時間과 精力을 全的으로 傾注할 수 있는 분들에게 依해 任員編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機關誌 “獸醫界”는 其間 꾸준히 缺刊없이 發刊되었고 이의 充實을 爲한 廣範한 會員層으로 부터의 創意的 熱誠에 넘치는 投稿의 增大와 編輯實務者들의 苦

勞는 앞장세워도 좋을만한 훌륭한 模範의 成果였다.

특히 이 機關誌가 多大數會員層의 了解에 알맞도록 하면서도 海外進出과 더불어 考慮에 넣어야 할 質과 體裁의 權威等을 그 어느 한쪽도 偏向해서는 안될 立場에서 다루어 온 編輯委員會의 苦心과 努力도 꾸준하였다.

“家畜傳染病學”을 始初로 最近의 “獸醫診斷學”까지 前後 7회에 걸쳐 外書翻譯出版普及事業을 한 것과 年例事業인 獸醫臨床講習會 및 畜產物檢査講習會開催는 會員들의 理論 및 技術의 飛躍的 發展에 功獻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會員들의 福祉擁護를 위한 事業에서도 微力이나마 그 可能한 與件下에서의 힘을 다 傾注하였으니 法理論的으로 不當한 課稅에 對한 免稅措置를 위한 關係當局과의 接觸解決이라던지 農林當局이 公獸醫增員 및 그의 手當增額等의 果敢한 行政을 斷行함에 있어서의 建設的인 進言이라던지 韓美財團을 通한 國內市場에서 到底히 求得하지 못할 外產高級藥品의 無償斡旋配給이라던지 家畜防疫藥品의 民營化에로의 轉換을 契機로 製造業者들과의 執拗한 協議를 거친 獸醫師會 一手販賣斡旋契約締結(이로 因하여 事實上 防疫藥品은 臨床獸醫師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에 成功한 點等이 主要한 成果들로 꼽힌다.

우리會는 또한 우리 權威의 侵害를 가로 막는 데도 敏感한 適期活動을 하였으니 그 一例로 農協中央會가 그 預託牛의 斃牛檢案을 實施함에 있어서 初期에 警察官立會를 條件附로 하였던 것을 우리의 奮然蹶起한 姿勢를 보자 이를 是正하였던 것이다.

會의 活動力은 最近에 이르러 더욱 飛躍하여 外國 獸醫組織體와의 交流가 頻繁해져서 從前의 우리 理論 및 技術의 獨善의 安逸性을 克服하는 좋은 刺戟劑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成果들을 羅列해놓고 보니 其發展이 나무랄

데 없어 우리들은 能히 自己滿足에 陶醉하여도 無妨한 듯이 되고 말았으나 그것은 初創期에 있어서의 것이 絶望에 가까운 痲疾의인 制約性들을 自慰삼아 그 야말로 鼓舞의인 피리를 부러본데 不過하다는 것으로 알고 우리 서로가 다시 한번 허리를 졸라매고 奮發할 態勢에로 一大轉換點을 마련함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먼저 謙虛한 立場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소견음으로 自認하는 徹底한 批判精神이 앞서야 되겠다는 前提下에서 棟懼스러우나 마 몇가지 指摘과 呼訴를 提起하고자 한다.

첫째 무어니무어니 해도 財政面에서의 自主性を 確立못한 채 오늘날까지 獨自의인 事務室하나없이 보따리 살림을 繼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서글픈 事實이 모든 아쉬움의 代辯者처럼 앞질러 터어나오는 것을 참을 길이 없다.

이러한 財政面의 自主性缺如는 다음과 같은 會員들의 會費納付實情으로 붙어 招來된다.

年度別	豫算額	納付額	備考
1962	62,000	12,160	
1963	108,000	7,900	5月末現在

會運營을 위한 基本歲入을 堪當해나갈 會費納付에 있어서 如上의 實情인지라 會는 “獸醫界”誌廣告料歲入으로(1962年度豫算額 128,000에 歲入 191,000) 겨우 그 運營費를 充當해가며 延命해온 셈이다.

이러한 窮乏한 實情은 各地方獸醫師會에 있어서도 不動產等基本財政이 確立되어 있는 全羅北道獸醫師會나 運營費를 道費補助로 받고 있다는 忠淸北道獸醫師會의 例를 除外하고는 거의 同一樣相이라 생각된다.

創立初期부터 4·19까지 光化門네거리 所在 畜產農村社屋(當時會長 金柄淳氏私財)의 한구석을 빌려졌고 4·19以後 現今까지 京畿道家畜保健所의 一室을 빌려 쓰고 있는 本會事務室難을 解決하기 위하여 1959년에 會館建立推進委員會를 組織코 建立基金募金運動을 展開해 왔으나 于今껏 겨우 70,000원의 線에서 맴돌고 있는 寒心스러운 實情이다.

둘째로 當局의 補助에 依해 會가 上述한 苦衷속에서도 萬難을 무릅쓰고 만들어내는 “獸醫界”誌나(大概의 境遇) 各地方獸醫師會에 이런 書籍들이 本會로부터 發送되던 各地方獸醫師會도 上述한 財政難으로 每個人에게 이를 發送할 通信運搬費가 없기 때문에 各市郡 畜產係勤務會員을 通하여 配布를 依賴하고 있

는 實情이라고 짐작되나 一部地方에서는 配布活動이 아주 좋지 못하다) 翻譯圖書가 돈지 속에서 덩구는 一部狀況은 그 自體發展에 落後하고 따라서 地位萎縮과 經濟萎縮이 오고 그렇기에 얼마안되는 會費조차 지원 시원 내기 싫다는 式的 結果論이 나올뿐만 아니라 全體會員의 均衡性 있는 理論 및 技術向上을 指向하고 있는 本會活動目的을 좀더 忠實히 達成해오려고 애쓰는 發刊事業從事同志(제때에 俸給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有能한 일꾼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出版物이 廣範한 會員層의 愛讀의 對象이 된다는 情熱의 期待없이 는 정말 持續못할 일임을 이 機會에 꼭 밝혀두고 싶다)들의 形言기 어려운 勞苦를 아주 外面하는 結果가 된다.

그렇기에 이런 傾向들은 會員相互間의 親睦團結의 見地에서도 距離가 있는 일이라고 擴大鏡을 쓰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大小間에 협잡을 일들이 몇가지 있기는 하나 根本要因을 따지고 보면 모두 如上 두가지의 傾向性으로 부터 派生되는 것들이기에 구태여 列舉하지 않으려다.

그러면 果然 우리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會의 飛躍의 育成發展을 期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獸醫界”誌 6卷2號에 “獸醫權益伸長의 積極策”이라는 題下에 若干 言及한바 있어 여기에서는 重復을 避하여 몇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本會가 發展하기 爲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各地方獸醫師會가 그 充實을 期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自明한 常識論이라. 오래前부터의 豫見性 있는 活動으로 特殊하게 有利한 既得條件을 갖추고 있어 性急히 一律의 普遍化的 模型으로 提示하기는 困難하나 아무튼 나는 여기 參考삼아 가장 旺盛한 意慾을 가지고 活動하고 있는 全羅北道獸醫師會의 片貌들을 簡略히 紹介하련다.

첫째 全北道會의 自主的인 安定性은 獨自的인 會館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시작된다. 요즘은 無敎會宗敎論者도 나오는 模樣인데 會館이 있건 없건 그게 무슨 큰 是非거리가 되느냐고 내 着想의 恰似形式主義를 비웃을 분이 제길지는 모르나 事實上 關係公務廳의 한 구석에(그것도 直接的 指導監督機關일 때는 더하다) 會名目的 連絡員 비슷한 役割을 하는분이 있다고 해서 會의 自律的發展에로의 轉換點이 언젠가는 오리라 莫然한 期待를 갖어보는 것처럼 百年河淸의 未練에 것

은 선비는 또 없을 것으로 안다.

全北에서 會館을 保有함으로 해서 自體事業能率이나 그 權威堅持의 면에서 大端히 어엿한 바가 있다.

公獸醫任命이나 表彰같은 境遇에 반드시 道獸醫師會의 推薦을 通하여서 한다면 政府로부터의 畜產資金投融資 및 導入種乳牛配定에 있어서의 公獸醫優先措置의 爭取를 기여코 成功한 點이라던지 家畜病院新規開設會員에게 會가 施設資金을 融資해주는 등의 實로 天壤之差의 模範的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本會를 爲始한 全國各地方會는 이러한 全北의 例를 自己것으로 普遍化시켜 불만한 意慾은 없지 않겠지만 實踐的 熱意가 果敢하지 못한 것으로 因하여 소걸음을 뚫지 못하고 있는 줄 안다.

이러한 果敢한 實踐力은 勿論 그 領導體로되는 幾個任員들의 豊富한 構想과 迫力에 左右되는바가 적지는 않겠지만 全體構成員들 卽 會員들의 積極的協同性이 가장 큰 決定的인 要因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成果도 成果이려니와 每個會員의 覺醒促求의 見地에서 더욱 緊要하다고 느끼는 것은 會運營의 死活素가 되는 會費納付活動에 있어서 從前의 隨性을 一掃하기 위한 一大革新運動이 展開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大韓獸醫師會나 各地方獸醫師會의 主要任員들은 이런 運動을 보다 높은 段階의 成果(會費徵收의 係數)의 問題에만 執着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會員들의 會事業 意義에 대한 徹底한 再認識促求의 見地에서) 에로 치켜올리기 위하여 心血을 기울이는 卓越한 參謀가 되어야 할 것이다.

每個會員들은 이 任員들에 積極呼應하여 他律的 被動性을 脫皮하고 各市郡畜產擔任同志들의(우어니우어니 해도 이분들의 役割이 가장 重要하다) 核心的 役割下에 鞏固히 團合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물샐틈없이 채입새가 마련만 된다면 會費는 한푼의 의누리없이 徵收될 것이고 會運營의 財政的 基盤이 確立될 것이며 이러한 集團의 士氣의 威勢는 新分野開拓의 增大로 會基本金成功에로의 보다 遠大한 活路를 터워주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會費問題外에 더 蛇足を 붙일 必要를 느끼지는 않으나 會運營의 當面한 切迫感에서 이 機會에 빼어놓을 수 없는 두 가지의 問題點을 呼訴하지 않을 수 없다.

會館建立基金助成運動에 좀더 積極的인 活氣를 더어야겠다는 것인데 會館의 必要性與否에 對한 是非는 次置하고라도 一但 마련된 처음의 學會의 運動이니 早速時日內에 期必코 完遂하고 말아야겠다는 意志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家畜傳染病豫防藥品營化와 더불어 實需要者에로의 供給態勢를 確立하는데 있어 製造業者들은 오직 臨床獸醫師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販賣치 못하도록 大韓獸醫師會와 契約締結을 하였다는 것은 前述한바 있거니와 아직도 一部會員中에 이 契約의 恒久的 遵守가 우리의 權益守護에 얼마나 至大한 寄與를 하고 있는가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여 會를 通하여 斡旋을 받지 않고 個別的인 購買行動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은 大端히 遺憾된 일이라 此際에 嚴重한 忠告를 던져두지 않을 수 없다.

된말않된말 어수선하게 지꺼려놓고 겨우 그런 方案程度로써 山積한 隘路들에 짓눌려있는 우리會의 飛躍的 發展을 促求할 수 있을 것인가고 冷視할분이 없지도 않겠으나 오직 하여 손쉬운 이런 問題들이 목이 달토록 지꺼려야 할 呼訴꺼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를 우리 會員相互가 深刻히 도리켜 생각해볼 重大한 高비에 이르렀다고 보아 서슴치 않는다.

(筆者=大韓獸醫師會理事) 鷗

各 種 印 刷 美 文 社
圖 書 出 版

代 表 河 聖 洛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2街108

電話 ③ 7826 ② 6652